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봄축제 ‘개화기’에 100여년 전인 개화기 시대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개화기 축제는 ‘타임슬립’과 ‘봄꽃’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실외 매직아일랜드와 실내 어드벤처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색다른 행사이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1900년대 그때로...그대와 걸으니 참 좋소!”

개화기 거리 재현, 뉴트로 트렌드 반영
실내는 베니스 가면 축제 등 꽃 콘셉트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과 분홍빛 봄꽃의 조화.’

롯데월드 어드벤처(대표 박동기)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색다른 계절 축제를 마련했다. ‘메이크 어 미라클’(Make a Miracle)이란 테마로 봄철에 맞춰 시즌 축제 ‘개화기’를 9일부터 6월23일까지 107일간 진행한다. 축제의 이름 ‘개화기’는 꽃이 피는 시기(開花期)라는 의미와 근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구한말을 가리키는 새로운 문화가 열리는 시기(開化期)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목부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파크를 크게 둘로 나누어 두 가지 콘셉트의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축제 ‘개화기’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매직아일랜드에서는 과거 개화기 시대로 떠나는 ‘타임슬립’을, 실내 공간인 어드벤처에서는 화사한 봄 분위기를 담은 꽃축제가 펼쳐진다.

●1900년대 개화기로 ‘타임슬립’

매직 아일랜드는 섬으로 연결되는 메인 브릿지부터 매직캐슬까지 전역을 뉴트로(n



화사한 봄 분위기를 강조한 ‘환타지 마스크 퍼레이드’. 호수가배, 황금당 등 고풍스런 분위기의 한글간판으로 바뀐 매직아일랜드 상점, 개화기 국내에 문을 연 첫 서구식 호텔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재현한 ‘호텔 캐슬’. 사진제공 | 롯데월드

ewtro·복고를 현대식으로 재해석) 트렌드를 반영해 1900년대 거리를 충실하게 재현했다. 한복집, 가배집(가배), 음반점, 양장점 등 당시 상점부터 전차, 인력거와 정류소 등 꼼꼼하게 재현한 메인 브릿지 ‘캐슬로’는 거리 그 자체가 이색 포토존이다.

특히 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매직캐슬을 100년 전 국내에 들어온 서구식 호텔 스타일로 꾸민 것이 하이라이트. 1층은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는 로비, 2층은 테마 객실, 3층은 라운지 바로 조성해 화려한 샹들리에와 커튼, 조각상, 사진 등을 배치했다. 가구부터 벽지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당시 시대정서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주말에는 3층 라운지 바에서 전차순 한정판 가배(커피)도 즐길 수 있다.



매직 아일랜드 주요 어트랙션과 식음매장, 상품부스의 간판도 ‘박치기광광’, ‘고소호 하우스 귀신-대’, ‘벼랑 끝 의자’, ‘별밤 급행열차’ 등 재치있는 한글 명칭으로 바꾸었다. 매직 아일랜드쪽 입구에 있는 어드벤처 2층 ‘픽시매지 살롱’에서 당시 의상과 소품도 대여해 시대를 거슬러 당시의 모던보이, 모던걸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내는 분홍빛 개화기(開花期) 축제

실내 공간인 어드벤처는 연분홍 벚꽃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개화기’(開花期) 축제가 펼쳐진다. 1층 퍼레이드 동선에는 벚꽃으로 장식된 가로등 ‘벚꽃 사이로’를 설치했고 봄꽃 콘셉트의 식음 메뉴와 상품들도 다양하게 갖추었다.



특히 메인 퍼레이드 ‘환타지 마스크 퍼레이드’는 환상적인 베니스 가면 축제와 동화속 주인공들이 봄 분위기에 맞는 신나는 스테이지를 보여준다. 엘리스, 흰 토끼, 쌍둥이 형제 등이 등장해 벌어지는 댄스 파티를 볼 수 있는 ‘편! 편! 엘리스’와 롯데월드 캐릭터들이 총 출동하는 ‘캐릭터 환타지아’도 봄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퍼포먼스다.

어드벤처 4층에 있는 인생샷 성지 ‘그릴 싸인관’도 축제에 맞춰 새단장을 했다. 강렬한 원색의 컬러로 발랄하게 장식된 부스부터 1900년대 개화기 소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부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생기 넘치는 부스 등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촬영 공간을 마련해 나만의 인생샷에 도전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걷기여행 명소 ‘남파랑길’ BI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거리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코스인 부산부터 전남 해남 구간의 ‘남파랑길’(1463km) 브랜드 이미지(BI·사진)를 공개했다. 남파랑길 브랜드 이미지(BI)의 상징표시(심벌마크)는 지형적 특징인 리아스식 해안을 본떠 간략한 선으로 표현했다. 문체부는 상징표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상징표시와 응용 시스템 디자인도 개발하고, 상징표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로고를 디자인했다.

서울관광재단, MICE 미래 인재 모집

서울관광재단(대표 이재성)은 3월 20일까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MICE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현재 MICE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서울 MICE 서포터즈, 서울 MICE 기자단, 서울 MICE 인재뱅크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기자단과 인재뱅크 2개 분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MICE 기자단은 관련 취재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뱅크는 MICE 업계 취업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과 멘토링, 서울 MICE Alliance(SMA) 회원사와의 매칭을 통해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작은 집, 작은 땅, 작은 돈으로 누리는 전원생활



본 조감도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양평IC(경기광주-원주간고속도로) 4.25km
매곡역 약 800m 역세권
강남에서 40분 생활권



자연을 품은 “팜 누리” 양평타운

접근하기 쉬운 위치 '팜 누리'

동양평IC 4.25km, 매곡역 약 800m 역세권, 강남에서 40분 생활권

작지만 있을건 다 있는 큰집 '팜 누리'

화장실, 싱크대, 샤워실, TV, 세탁기, 냉장고, 화덕 난로 등

수익형 임대상품(월45만원 예상) '팜 누리'

국내 캠핑인구 2011년 60만명 → 2016년 500만명으로 8배 증가

온가족과 함께 농사하는 '팜 누리'

세대별 '김장독, 옥외데크, 그네, 가마솥화덕 등 전원생활 시설

1억 이하의 작은 금액 '팜 누리'

토지, 건물포함 8500만 부터, 토지주 직접 분양

문의전화 031-711-0940